

한국농어촌공사 고양지사, 농업용수 자동화시스템, 재해 예방 효과 '톡톡'

[박정호]

CCTV와 자동화시스템으로 실시간 재해대응 가능
2,908ha 농경지 효율적 관리로 무사고 기록

한국농어촌공사 고양지사(지사장 유승호)가 운영하는 농업용수관리 자동화시스템(TM/TC)이 농업용수 공급은 물론 재난 대비 측면에서도 큰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.

고양지사는 2016년 처음 도입한 자동화시스템을 통해 고양시와 파주시 일원 2,908ha에 이르는 광범위한 농경지에 농업용수를 효율적으로 공급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.

이 시스템은 고양지사가 관리하는 양수장, 배수장, 수문 등 각종 농업생산기반시설에 수위센서와 CCTV를 설치해 원격 모니터링과 제어를 가능하게 한다.

특히 사무실에서 수십km 떨어진 현장도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통제할 수 있어 운영 효율성을 크게 높였다.

자동화시스템의 가장 큰 장점은 재해 대응능력이다.

기습폭우 발생 시 직원이 현장에 도착하기 전에도 무인으로 배수장을 가동할 수 있어 침수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.



▲ 사진제공=한국농어촌공사 고양지사/지사 내 자동화시스템

실제로 고양지사는 올해도 자동화시스템을 적극 활용해 단 한 건의 사고 없이 안정적으로 농업용수를 공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.

또한 지자체, 군부대, 경찰 등 유관기관과의 공조체계를 통해 지역 사회안전망 구축에도 기여하고 있다.

유승호 고양지사장은 "신규 시설물 조성사업 및 시설물 개보수사업에 적극적으로 자동화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"며 "AI 등 최신 기술을 접목해 재해예방 및 영농편익 증진에 최선을 다하겠다"고 향후 계획을 밝혔다.

이처럼 고양지사의 농업용수관리 자동화시스템은 효율적인 농업용수 공급과 재해 예방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으며, 스마트 농업 인프라 구축의 모범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.